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비교

남 순 현¹⁾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중년기 발달변화 속에서 기혼여성의 부부간의 성과 자신의 일(가사일 혹은 직장일)에 대한 태도를 탐색해봄으로써 오늘날 가족의 불안정성 속에서 중년기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40세부터 64세까지 중년기 기혼여성 374명(전업주부 166명, 취업주부 206명)이었고, 조사기간은 2008년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였다. 첫째,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생활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통적 성태도($\beta=.15, p<.01$), 합리적 성태도($\beta=.25, p<.01$), 통제적 성대처행동($\beta=.18, p<.01$) 및 성생활만족($\beta=.20, p<.01$)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취업주부는 성지식($\beta=-.11, p<.01$), 전통적 성태도($\beta=-.18, p<.01$), 합리적 성태도($\beta=.36, p<.01$), 표현적 성대처행동($\beta=.23, p<.01$)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중년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일생활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몰입($\beta=.32, \beta=.51, p<.01$)은 일만족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일만족($\beta=.18, \beta=.23, p<.01$)은 각각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과 일에 모두 만족한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성과 일에 모두 만족하지 못한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성만족이 낮고 일만족이 높은 집단이 성만족이 높고 일만족이 낮은 집단보다 심리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중년기 기혼여성에게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요어 : 중년기, 기혼여성, 성, 일, 심리적 행복감, 성생활만족, 성태도, 성대처행동, 일몰입, 일만족

1) 교신저자: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shnam@honam.ac.kr)

I. 서 론

심리적 행복감이 객관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심리적 행복감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다(Andrews & Robinson, 1991). 즉, 심리적 행복감은 상황에 따라 반드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장재정, 1987). 따라서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삶의 양식이 다양해지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대하여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 심리적 행복감은 가족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2007)에 따르면, 전체 여성취업자 중 74.1%가 기혼여성이며,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1990년 43.5%에서 2007년 49.93%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높은 경제참여율이 맞벌이 부부, 한부모(편모) 가족 및 독신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부추기면서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생발달단계에서 중년기 기혼여성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침체되고 무미건조한 결혼생활의 부부관계를 재평가하여야 할 시기에 직면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 기혼여성은 신체노화와 더불어 40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체성 의문, 자녀와의 관계변화 및 부부관계에 대한 재평가를 경험하면서(한경혜, 노영주, 2000), 자녀와의 심리적 분리 속에서 개인의 행복과 결혼생활을 재조명해 본다. 전업주부는 가족 내에서 자신

의 역할성취와 결혼생활을 재검토하고, 취업주부는 취업주부 나름대로 사회적 성취와 가정과 직장 안에서 자신의 역할균형과 결혼생활에 의문을 품는다. 즉, 보살핌의 주된 기능에서 벗어나 중년기 기혼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할 때,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위기의 핵심은 일과 사랑이다.

1. 중년기 기혼여성의 발달적 변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중년층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점점 중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로 인하여 가족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기간이 짧아지면서 중년기가 장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년층의 인구증가와 중년기의 장기화로 인해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년기는 전 인생주기의 주요단계로 가족생활주기관점에서는 자녀양육역할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노부모와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시기이다. 개인의 전생애적 관점에서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에서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음을 인식하는 시기이다(김명자, 2004).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있는 중년기 여성은 애정적 후원체계의 상실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통해 다양한 위기를 경험한

다. Jaques(1985)는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기 위기를 중년기 위기(midlife crisis)라고 하였다. 즉, 경력강화에 몰두하던 개인이 어느 시점부터 가족생활에 몰입하는 것처럼(Levinson, 1978, 1996), 중년의 전환기에 놓여있는 개인은 새로운 직업을 택하거나 재혼을 함으로써 인생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중년기 위기의 보편성, 시기, 유용성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전문직 여성보다 일반직 여성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위기감이 나타났고(김명자, 1988), 부부, 자녀 및 노부모 관계가 긍정적이고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확고할수록, 중년기 위기감 수준이 낮았다(김명자, 1988). 또한, 중년기 위기는 신체연령보다 사회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김애순, 1993), 건강수준, 수입, 성별, 학력 등이 중년기 위기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년기는 인생의 절정기로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지혜, 포용력 등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시기로서, 개인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최고조로 증가하는 시기인 동시에 높은 수입 등으로 안정성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이며, 자기 확신감이 증가되고 자신의 능력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감이 충만한 시기(euphoric stage)이다(임효영, 2001; Gould, 1978; Levinson, 1985). 따라서 중년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중년기에 자신의 삶의 의미나 가치, 방향 등에 회의를 느끼지 않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Costa와 MaCrae(1980)도 중년에 위기감을 겪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년기 위기감이 얼마나 높은가보다는 위기감을 어떻게 수

용하고 해결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중년기 삶의 전환기를 위기로만 인식하느냐 아니면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과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훌륭하게 수행하느냐는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심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성 역할규범으로 인하여, 중년기 남성과 여성의 삶이 다른 발달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다(Levinson, 1996). 즉, 남성은 주로 직업적 꿈과 관련하여 장래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일에 몰두해왔지만, 여성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개의 꿈 사이에서 갈등해왔다(김애순, 1998; Levinson, 1996). 따라서 남편의 사회활동이 절정에 달하면서 중년기 기혼여성은 극도의 고립감을 느끼고, 심리·신체적 변화에 따른 우울감을 경험한다. 즉, 중년기 기혼여성은 갱년기 변화로 인한 에스트로겐의 감소와 노화에 대한 두려움, 가족 간의 역할갈등이 가중되면서 자신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자신의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를 지각하면서(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남성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년기 기혼여성은 자녀들에게 심리적 독립을 강요하면서도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체적·경제적 유대를 맺으려는 경향 때문에, 중년기 어머니의 역할은 이중적 구조를 갖게 되고(홍미혜, 1999), 갱년기 증상이라는 신체적 변화와 인간 개인으로서의 진정한 자아통합에 대한 욕구속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학자에 따라 중년기를 전성기 또는 황금기, 쇠퇴기 또는 위기의 시기라고 일컫지만,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 중년기를 이해하기 보다는

청소년기처럼 중년기도 인생의 전환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Farrell & Rosenberg, 1981; Rossi, 1980). 따라서 중년기 기혼여성이 수행해야 할 과업은,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 부부간의 애정 재확립과 중년기 위기의 극복, 직업 활동에 대한 몰두와 여가선용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은 남성과 달리,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개의 꿈 사이에서 늘 갈등해왔기 때문에, 중년의 삶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기혼여성에게 일과 사랑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2.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

부부간의 적응과 생활만족에 있어서 성(sexuality)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부간의 애정은 부부간의 상호이해와 성관계의 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최근 들어 부부의 성관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개방 풍조와 더불어 성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더욱이 기혼여성의 성기능장애나 성적 불만으로 치료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정동철, 1985; 이홍식, 1986). 이홍식(1987)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혼부부의 성기능장애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데, 여성들은 성적 흥분이나 각성이 억제된 범성장애보다는 성적인 절정감 장애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생활의 만족, 불만족 여부는 당사자 개인의 정신·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

부 두 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가정 내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Duvall, 1977; Hogan, 1985; 문혜숙, 1993).

성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이 만족스러울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생활의 위기시기에 문제를 악화시키고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킨다(문혜숙, 1993; James & Wilson, 1986). 과거 대부분의 중년기 기혼여성이 폐경과 갱년기라는 신체적 변화로 인하여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했지만, 점차 오늘날 중년기 기혼여성은 중년기 신체변화에 대해 오히려 성적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삼, 사십대는 상대적으로 성적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인생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중년기 기혼여성에게 배우자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성은 중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임상장면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부간의 성관계가 결여될 경우, 그것이 신체증상이나 부부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사회적·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정서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Horowitz, 1979). 또한 성적인 부부친밀감의 결여가 이혼사유로 빈번히 거론됨으로써(Moss & Schwebel, 1993), 부부간의 성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이 되고 있다. 부인의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으며, 부부간의 가치관이 일치할수록 상호회피적인 의사소통을 피하고, 상호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부친밀감은 높다(김미라, 2001). Cole(1975)은 만족스런 성생활이야말로 자아성취 및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신체문제들

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성생활 만족여부는 여성 자신은 물론 가족,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관련되는 중요성을 지닌다.

부부간의 성생활이 생식목적이나 즐거움 이외에도,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요소가 되고, 성행위와 관련된 성만족은 개인의 안녕상태와 직결됨(Allgeier & Allgeier, 1988; McCann & Biaggi, 1989)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부들은 성적 불만족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편이다.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되는 부부들의 경우 상호간에 성적 만족을 느끼고, 성적 만족을 느끼는 부부의 경우 남편이 주로 성관계의사를 표현하지만 서로가 성관계를 상호주도하며, 여성의 성만족은 배우자의 지지나 성교빈도보다는 개방적인 성태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양미란, 1993). 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할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성태도는 개인의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가치관 및 성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ecloski, 1976). 또한 성태도는 성생활과 관련되어 일단 형성되면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Derogatis, 1980), 성태도에 따라 성생활 만족여부가 달라진다(Rubin, 196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성지식, 성대처행동 및 성에 대한 태도를 통해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중년기 기혼여성의 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사노동은 주부의 생

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가사노동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당사자인 전업주부들은 가사노동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즉, 가사노동을 통해 주부로써의 정체감과 가족 내에서 아내,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확립해나가기 보다는 취업주부에 대해 더 많은 동경과 부러움을 보낸다. 하지만 가족 내 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양과 질은 모든 가족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부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인간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기는 어렵다. 일에 몰두하다보면, 가족에 소홀하기 십상이고, 가족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일에 소홀해진다. 과거 개인의 집단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은 개인이 가족체계의 구성원일 때보다 사회집단의 일원이 될 때 강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집단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은 개인주의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령층이 낮은 부모일수록 직장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개인의 건강과 여가를 즐기려한다. 이는 개인에게서 공적인 생활보다는 사적인 생활, 즉 가족의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남순현, 2000).

가정은 모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사회단위이며 인간이 성장, 발달해 나가는 일차적 환경인 동시에 그들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의 장이다. 이 가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부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이

거나 신체적인 문제를 갖게 되면, 가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건강은 건전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장명옥, 1985).

주부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인으로써 취업을 꼽는다. 과연 취업이 주부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는 논의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김혜원(1997)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사회구조적 변인, 주부가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의 질 및 성역할태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부의 취업여부, 즉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신 주부들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요인들이 전업주부나 취업주부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김혜원, 1997; Baruch, Biener, & Barnett, 1987; Barnett, Davison, & Marshall, 1991).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몰입하고 만족을 느끼는 정도는 인생의 전환기에 놓여있는 중년기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행복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sikszentmihalyi(1975)은 어떤 활동을 수행하면서 깊이 몰두하여 그 자체가 즐겁고, 점차 주위를 의식하지 않으며,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급기야 주어진 활동과 자신이 일체화되어 행동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하여 몰입(flow)이라고 하였다. 즉, 사람들은 이런 심리경험을 통해서 즐거움(enjoyment)과 행복감(happiness)을 느끼고, 중국에는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에 도달한다. 전업주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하고, 높은 인식과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인이 지각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행복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Tait, Padgett, & Baldwin, 1989).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직업과 행복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이나 다른 영역에서도 만족감을 보였다(Heady & Wearing, 1992; Judge & Watanabe, 1993). 남녀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차이 연구(Clark, 1996)에서 남성은 더 많은 급여, 더 높은 지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지만 여성은 급여나 지위보다는 상사나 동료와의 좋은 인간관계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의, 노안영, 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볼 때, 최근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율 증가는 전업주부보다 전문직 직업여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낳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업 그 자체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더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취업주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정과 일의 양립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업주부는 직장이라는 공간보다는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취업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을 갖고 있지만,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 내 자신의 역할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중년기 기혼여성은 자신의 정체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일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그 가치가 떨어질수록 중년기 위기감은 클 것이고,

가치가 클수록 중년기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전업주부가 가사노동과 취업주부가 직장업무에 대해 지각하는 일 몰입과 일 만족도를 통해 중년기 기혼여성에게 지니는 일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4. 심리적 행복감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또는 행복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는 심리적 행복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행복은 주관적이다. Campbell(1976)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한다. 건강, 부, 명예, 육체적 안락 등과 같은 외적 조건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 자체에 행복의 본질적 요소가 내재해 있지는 않다. 둘째, 행복은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한다(Bradburn, 1969). 셋째, 행복은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 비록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도나 정서반응을 평가한다하더라도 행복의 핵심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인구 통계적, 경제사회적 변인이 주요 연구대상이었으나 점차 객관적인 측면은 물론 주관적인 측면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즉, 객관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각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은 중요하다(Campbell, 1976; Near, Smith, Rice, & Hunt, 1983). 사회학자들은 객관적인 요소를 삶의 질의 연구대상으로 보고, 건강,

경제변영 및 안정, 개인의 사회적 지위, 여가, 교육 및 개발, 개인적 자유와 기회보장, 정치적 자유, 평등, 권리 및 정의, 사생활 및 비밀 보장, 미적 환경의 조성, 환경보호(Rescher, 1972) 등을 주요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Szalai(1980)는 삶의 질을 다양한 생활측면에서 느끼는 안녕감 또는 행복감으로 정의하고, 그 연구를 위한 사회지표에는 전통적인 객관적 지표 외에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 주관적 측면이 심리학의 연구영역이고, 심리적 행복감의 연구 방향이다(윤창영, 이순목, 2002).

삶의 질(quality of life) 또는 안녕감(well-being)에 대한 연구자들의 입장은 크게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으로써 이를 설명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Diner, 1984). 주관적 안녕감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삶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부분과 상황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써 측정한다(김명소 등, 2003).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6개영역으로 측정하는데,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동기가 있다. 김명소 등(2003)이 행복한 삶의 요인을 Alderfer(1972)의 생존·관계·성장의 욕구이론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조망한 결과, 중년여성은 자기수용감, 여가,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받을 때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써 연령(정진희, 이정우, 2005), 생활수준(양명숙, 하경란) 등을 들 수 있고, 심리적 변인으로써 자아존중감(김윤민, 2003; 신기영, 1999)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무가 중년기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처럼, 이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심리적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에게서 차이를 보였다.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전업주부는 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전업주부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결혼관계에서의 평등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가 충족됐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았다(윤경자, 1997). 조금숙과 조중열(2004)은 취업주부의 경우 근대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전업주부의 경우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정생활변인으로써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의 질은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고(Aneshensel, 1986),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기혼여성은 혼자 살거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보다 더 우울해 했다(조옥희, 2004; Dehle & Weiss, 1998). 남편의 공정한 배려(박정희, 유영주, 1999), 의사결정권(박민자, 1997) 및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지각, 부부관계 적응(하은혜, 오경자, 김은정, 1999)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혼여성들은 결혼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울감을 호소했다.

5.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가족의 불안정성 속에서 중년기 발달적 변화를 겪고 있는 기혼여성의 성과 일이 중년기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중년기는 개인의 행복과 결혼생활을 재조명해봄으로써 보살핌의 기능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인생의 전환기에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은 중요한 발달과업이고, 이 발달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중년기의 삶은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첫째, 중년기 기혼여성의 발달적 변화가 부부관계, 특히 부부간의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둘째, 중년기 발달변화가 기혼여성의 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 모두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 성생활만족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 성생활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일몰입과 일만족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일몰입, 일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각각 성만족과 일만족의 고저에 따라 4집단(성고일고, 성고일저, 성저일고, 성저일저)으로 구분하였을때,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각 집단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성인이 끝나는 40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64세까지 중년기 기혼여성 400명이다. 조사기간은 2008년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였고, 표본 표집은 유목적 편의 표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에 동의하는 중년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자료를 얻거나, 회사, 학교, 교회, 아파트 부녀회, 문화센터 및 복지기관 등의 책임자를 통해 본 연구대상자의 조건에 맞는 기혼여성을 소개받아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직접 설문에 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의 책임자를 통해 설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설문지를 반송봉투가 동봉된 봉투에 밀봉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건네준 후 회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항들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게 하고, 연구대상자의 개인비밀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여성 400명에게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6부를 제외한 374부만이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5.99세($SD=5.01$)였고, 전업주부는 166명(44.4%), 취업주부는 206명(55.1%)이었다(무응답 0.5%(2명)). 평균 결혼기간은 187.35개월($SD=117.73$)이었고, 결혼상태는 초혼 303명(81%), 재혼 11명(2.9%), 이혼 6명(1.6%), 사별 2명(0.5%), 별거 3명(0.8%)이었고, 대부분이 초혼이었다(무응답 13.1%(49명)). 취업주부의 평균 근무기간은 120.87개월($SD=112.45$)이었고, 영업직 49명(23.8%), 사무직 29명(14.1%), 자영업 43명(20.9%), 전문직 47명(22.8%), 기타 38명(18.4%)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141명(37.7%), 대졸 118명(31.6%), 전문대졸 36명(9.6%)으로 대부분이 고졸 이상이었다. 월평균 경제수준은 350만원 이상이 118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 미만이 58명(15.5%), 150-200만원이 49명(13.1%), 200-250만원이 46명(12.3%), 250-300만원이 52명(13.9%)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127명(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천주교 66명(17.6%), 불교 50명(13.4%)이었다. 연구대상자의 264명(70.6%)이 자원봉사 경험을 갖고 있었고, 이들 중 83명(31.5%)이 년 1-2회, 82명(31.1%)이 월 1-2회, 38명(13.6%)이 주 1-2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2. 측정도구

성지식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민하영, 이영미, 김정화(2006)가 기존의 연구들(김현정, 이귀옥, 2000; 안양숙, 정혜정, 정혜정, 이정숙, 1997;

이문희, 1993)을 토대로 만든 청소년의 성지식 척도 12문항을 중년여성에게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지식 척도는 20문항이고, 응답자는 성지식척도의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자신의 성지식 정도를 평가한다. 성지식척도의 문항에는 ‘난소는 자궁 양쪽으로 1개씩 있다’, ‘난소가 없으면 질이 건조하게 된다.’, ‘자궁이 없으면 여성의 성욕은 감소된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 ‘성관계 횟수가 많을수록 부부관계가 좋은 것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옳은 응답의 경우 1점, 틀린 응답의 경우 0점 처리되며, 응답가능 범위는 0점에서 20점이고, 본 연구에서 성지식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였다.

성대처행동척도

본 연구에서는 나임순(2006)이 개발한 노인의 성대처행동척도를 중년여성에게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성대처행동척도는 성적 불만족을 억제하는 성적통제성 8문항과 자유롭게 표현하는 성적표현성 8문항의 두개의 하위척도로 나뉘며, Likert식 5점 척도 총 16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성대처행동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였고, 각 하위척도의 경우 성적통제성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성적표현성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성태도척도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Hudson과 Murphy(1990)의 성태도척도(Sexual Attitude Scale)

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성태도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였고, 주성분분석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통적 성태도, 자유적 성태도, 도덕적 성태도, 합리적 성태도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전통적 성태도는 전통적인 성역할규범을 고수하는 성태도로써 ‘남자가 외도하는 것은 용납되지만 여자가 바람피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유적 성태도는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부지간의 성행위는 솔직하고 대담하게 즐기는 편이 좋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덕적 성태도는 성행위와 관련된 도덕적이고 관념적인 태도를 언급하는 것으로써, ‘부부 이외에 다른 상대와 성적 접촉을 갖는 것은 패륜에 속한다.’ 등이며, 합리적 성태도는 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말하며, ‘가정 생활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져야 가정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는 전통적 성태도에서 Cronbach's $\alpha=.65$, 자유적 성태도에서 Cronbach's $\alpha=.87$, 도덕적 성태도에서 Cronbach's $\alpha=.66$, 합리적 성태도에서 Cronbach's $\alpha=.92$ 였다.

성생활만족척도

부부간의 성행위를 통해 경험 하는 주관적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Hudson 등(1981)이 개발한 성생활만족도척도(Index of Sexual Satisfaction) 25문항을 김연과 유영주(2002)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21문항 중 성생활 즐거움과 관련된 10문항만을 추출하여 사용 하였다. 성생활 만족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였다.

일몰입척도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일에 대한 태도 중 Blau(1985)가 개발한 경력몰입척도 7개 문항을 전업주부의 가사일 몰입과 취업주부의 직장 일몰입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몰입척도의 신뢰도는 전업주부의 경우 Cronbach's $\alpha=.82$, 취업주부의 경우 Cronbach's $\alpha=.87$ 이었다.

일만족척도

김경희(2002)가 군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직무만족도 척도 30문항 중에서 일 자체 만족과 관련된 10문항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에 맞게 가사일 만족과 직장일 만족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일만족척도의 신뢰도는 전업주부의 경우 Cronbach's $\alpha=.86$, 취업주부의 경우 Cronbach's $\alpha=.93$ 이었다.

심리적 행복감척도

중년기 기혼여성이 최근 경험하는 일반적인 행복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Kammann과 Flett(1983)가 개발한 척도를 남순현(2000)이 번안한 4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97$ 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신뢰도, 평균, 요인분석, 변량분석, 회귀분석 및 중다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부간의 성이 중년기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중년 기혼여성의 성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 변량분석을 통해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 및 성생활만족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의 차이를 살펴본 후, 둘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성관련변인들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부간의 성에 대한 중년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에 차이는 표 1-1, 표 1-2, 표 1-3, 표 1-4와 같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성지식과 성생활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높은 전통적 성태도($M=4.29$; $F=3.95$, $p<.05$)와 높은 성적 통제성($M=9.95$;

표 1-1. 중년기 기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성지식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Mean(N)	df	MS	F
집단구분					
전업주부	성지식	10.79(166)	371(1, 370)	2.88	.68
취업주부		10.97(206)			

표 1-2. 중년기 기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성태도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Mean(N)	df	MS	F
집단구분	성태도				
전업주부	전통적 성태도	4.29(166)	371(1, 370)	17.08	3.95*
취업주부		3.86(206)			
전업주부	자유적 성태도	7.04(166)	371(1, 370)	112.92	10.14**
취업주부		8.15(206)			
전업주부	도덕적 성태도	5.89(166)	371(1, 370)	22.25	2.87
취업주부		6.38(206)			
전업주부	합리적 성태도	8.49(166)	371(1, 370)	31.97	2.29
취업주부		9.08(206)			

* $p < .05$, ** $p < .01$

표 1-3. 중년기 기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성대처행동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Mean(N)	df	MS	F
집단구분	성대처행동				
전업주부	성적 통제성	9.95(166)	371(1, 370)	99.77	4.33*
취업주부		8.91(206)			
전업주부	성적 표현성	10.20(166)	371(1, 370)	153.05	6.09*
취업주부		11.50(206)			

* $p < .05$

표 1-4. 중년기 기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성생활만족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Mean(N)	df	MS	F
집단구분					
전업주부	성생활만족	36.27(166)	371(1, 370)	1.15	1.45
취업주부		35.15(206)			

$F=4.33$, $p<.05$)를 보였고,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높은 자유적 성태도($M=8.15$; $F=10.14$, $p<.01$)와 성적 표현성($M=11.50$; $F=6.09$, $p<.05$)을 보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지식은 성적 통제성에 $\beta=.25$ ($F=31.93$, $p<.01$), 성적 표현성에 $\beta=.23$ ($F=38.78$, $p<.01$)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성적대처

표 2.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지식과 성태도를 성대처행동에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성지식	성적 통제성	.25	4.35**	.62	31.93**
성태도					
전통적 성태도		.30	4.84**		
자유적 성태도		.09	1.13		
도덕적 성태도		.04	.52		
합리적 성태도		.18	2.09*		
성지식	성적 표현성	.23	4.15**	.66	38.78**
성태도					
전통적 성태도		-.14	-2.38*		
자유적 성태도		.35	4.60**		
도덕적 성태도		-.04	-0.47		
합리적 성태도		.13	1.53		

* $p < .05$, ** $p < .01$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의 경우, 전통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중년기 전업주부는 성적 통제성에 $\beta = .30$ ($F = 31.93$, $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성적 표현성에 $\beta = -.14$ ($F = 38.78$, $p < .01$)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유적 성태도는 성적 표현성에 $\beta = .35$ ($F = 38.78$, $p < .01$)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합리적 성태도는 성적 통제성에 $\beta = .18$ ($F = 31.93$, $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대처행동을 성생활만족에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지식은 성생활만족에 $\beta = .20$ ($F = 2.70$, $p < .05$)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대처행동 중 성적 표현성은 성생활만족에 $\beta = -.23$ ($F = 2.70$, $p < .05$)

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 및 성생활만족을 심리적 행복감에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태도에서 전업주부의 전통적 성태도는 심리적 행복감에 $\beta = .15$ ($F = 10.81$, $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합리적 성태도는 $\beta = 2.57$ ($F = 10.81$, $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대처 행동 중 성적 통제성은 $\beta = .18$ ($F = 10.81$, $p < .01$), 성생활만족은 $\beta = .20$ ($F = 10.81$, $p < .01$)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중년기 취업주부의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 성생활만족 및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 표 6, 표 7과 같다.

취업주부는 표 5와 같이, 성지식은 성적 통

표 3.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을 성생활만족에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성지식	성생활만족	.20	2.64**	.27	2.70*
성태도					
전통적 성태도		.11	1.30		
자유적 성태도		-.06	-.61		
도덕적 성태도		.03	.29		
합리적 성태도		.05	.43		
성대처행동					
성적 통제성		.11	1.15		
성적 표현성		-.23	-2.22*		

* $p < .05$, ** $p < .01$

제성에 $\beta = .25$ ($F = 16.30$, $p < .01$), 성적 표현성에 $p < .01$ 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유적 성태도는 성적 표현성에 $\beta = .34$ ($F = 29.18$, $p < .01$), 합리적 성태도는 성적 표현성에 $\beta = .15$ ($F = 29.18$, $p < .01$)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성적 표현성에 $\beta = -.15$ ($F = 29.18$, $p < .01$)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4.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 및 성생활만족을 심리적 행복감에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성지식	심리적 행복감	-.06	-.89	.51	10.81**
성태도					
전통적 성태도		.15	2.06*		
자유적 성태도		.16	1.73		
도덕적 성태도		-.16	-1.76		
합리적 성태도		.25	2.57**		
성대처행동					
성적 통제성		.18	2.08*		
성적 표현성		.12	1.33		
성생활만족		.20	3.47**		

* $p < .05$, ** $p < .01$

표 5. 중년기 취업주부의 성지식과 성태도를 성대처행동에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성지식	성적 통제성	.25	4.65**	.45	16.30**
성태도					
전통적 성태도		.19	3.31**		
자유적 성태도		.10	1.30		
도덕적 성태도		.05	.75		
합리적 성태도		.04	.51		
성지식	성적 표현성	.17	3.35**	.56	29.18**
성태도					
전통적 성태도		-.15	-2.85**		
자유적 성태도		.34	4.88**		
도덕적 성태도		-.08	-1.33		
합리적 성태도		.15	1.99*		

* $p < .05$, ** $p < .01$

표 6에서처럼, 전통적 성태도를 지닌 취업 주부는 성생활만족에 $\beta = -.16$ ($F = 4.49$, $p < .01$)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성대처행동 중 성적 통제성은 성생활만족에 $\beta = -.21$ ($F = 4.49$, $p < .01$)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성적 표현성은 성생활만족에 $\beta = .20$ ($F = 4.49$)

표 6. 중년기 취업주부의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을 성생활만족에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성지식	성생활만족	.05	0.85	.30	4.49**
성태도					
전통적 성태도		-.16	-2.64**		
자유적 성태도		.08	.94		
도덕적 성태도		.01	.09		
합리적 성태도		.14	1.53		
성대처행동					
성적 통제성		-.21	-3.04**		
성적 표현성		.20	2.68**		

* $p < .05$, ** $p < .01$

표 7. 중년기 취업주부의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 및 성생활만족을 심리적 행복감에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성지식	심리적 행복감	-.11	-2.02*	.48	11.60**
성태도					
전통적 성태도		-.18	-3.18**		
자유적 성태도		-.02	-.28		
도덕적 성태도		.10	1.51		
합리적 성태도		.36	4.33**		
성대처행동					
성적 통제성		.07	1.15		
성적 표현성		.23	3.45**		
성생활만족		-.08	-1.47		

* $p < .05$, ** $p < .01$

$p < .01$)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취업주부의 성지식은 심리적 행복감에 $\beta = -.11$ ($F=11.60$ $p < .01$)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전통적 성태도는 심리적 행복감에 $\beta = -.18$ ($F=11.60$ $p < .01$)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합리적 성태도는 심리적 행복감에 $\beta = .36$ ($F=11.60$ $p < .01$)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적 표현성 성적 대처행동은 심리적 행복감에 $\beta = .23$ ($F=11.60$ $p < .01$)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일이 중년기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여성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일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을 통해 일몰입과 일만족에 대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의 차이를 살펴본 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의 일몰입, 일만족 및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업주부의 가사일과 취업주부의 직장일간

표 8-1. 중년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일몰입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Mean(N)	df	MS	F
취업유무					
전업주부	일몰입	16.60(166)	371(1, 370)	412.06	43.07**
취업주부		18.71(206)			

** $p < .01$

표 8-2. 중년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일만족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Mean(N)	df	MS	F
취업유무					
전업주부	일만족	24.11(165)	370(1, 369)	1954.72	41.83**
취업주부		28.73(206)			

** $p < .01$

의 일몰입과 일만족을 각각 변량분석을 실시 해본 결과는 표 8-1, 표 8-2와 같다. 연구결과, 전업주부는 취업주부가 직장일에 몰입하고 만족하는 것보다 가사 일에 대해 덜 몰입하고 ($M=16.60$; $F=43.07$, $p < .01$), 덜 만족을 느끼는 것($M=24.11$; $F=41.83$, $p < .01$)으로 나타났다.

표 9, 10에서 보는 것처럼, 중년기 전업주부의 일몰입, 일만족,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본 결과, 전업주부의 가사일에 대한 일몰입은 일만족에 $\beta=.32$ ($F=27.78$, $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일만족은 $\beta=.18$ ($F=8.03$, $p < .01$)로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표 11, 12의 결과에서도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와 동일하게 취업주부의 일몰입은 일만족에 $\beta=.51$ ($F=111.18$, $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일만족은 $\beta=.23$ ($F=14.39$, $p < .01$)로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3.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의 영향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생활과 일 모두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년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성생활만족과 일만족에 따라 각각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심리적 행복감에 변량분석과 Scheffé 사

표 9. 중년기 전업주부의 일몰입을 일만족에 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일몰입	일만족	.32	5.27**	.32	27.78**

** $p < .01$

표 10. 중년기 전업주부의 일몰입과 일만족을 심리적 행복감에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일몰입	심리적 행복감	.11	1.76	.25	8.03**
일만족		.18	2.85**		

** $p < .01$

표 11. 중년기 취업주부의 일몰입을 일반족에 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일몰입	일반족	.51	10.54**	.51	111.18**

** $p < .01$

표 12. 중년기 취업주부의 일몰입과 일반족을 심리적 행복감에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일몰입	심리적 행복감	.09	1.45	.29	14.39**
일반족		.23	3.72**		

** $p < .01$

후검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생활만족의 평균점수는 $M=33.12(SD=4.71)$, 일반족의 평균점수는 $M=25.61(SD=7.23)$ 이었고, 취업주부의 성생활만족의 평균점수는 $M=36.29(SD=4.92)$, 일반족의 평균점수는 $M=27.63(SD=6.14)$ 이었으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각 변인의 평균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다. 즉,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성생활만족이 높고 일반족이 높은 집단(성고일고 집단), 성생활만족이 낮고 일반족이 높은 집단(성저일고 집단), 성

생활만족이 높고 일반족이 낮은 집단(성고일저 집단), 성생활만족이 낮고 일반족이 낮은 집단(성저일저 집단)으로 나뉘었다.

연구결과, 표 13-1, 13-2 처럼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모두 평균점수에서 성생활만족이 높고 일반족이 높은 집단에서 심리적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생활만족이 낮고 일반족이 낮은 집단에서 심리적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가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에는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Scheffé 사후검증결과, 전업주부는 성생

표 13-1.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과 일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Mean(N)	df	MS	F
집단구분(전업주부)					
성고일고 집단	심리적 행복감	118.70(61)	166(3, 162)	672.48	4.70** (1=2=3>3=4)
성저일고 집단		115.00(24)			
성고일저 집단		111.37(20)			
성저일저 집단		109.70(61)			

** $p < .01$

표 13-2. 중년기 취업주부의 성과 일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Mean(N)	df	MS	F
집단구분(취업주부)					
성고일고 집단	심리적 행복감	117.61(49)	216(3, 369)	841.28	6.16** (1=2>2=3=4)
성저일고 집단		114.81(36)			
성고일저 집단		110.91(56)			
성저일저 집단		109.01(75)			

** p<.01

활만족이 높고 일만족이 높은 집단, 성생활만족이 낮고 일만족이 높은 집단, 성생활만족이 높고 일만족이 낮은 집단은 성생활만족이 낮고 일만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심리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고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취업주부는 성생활만족이 높고 일만족이 높은 집단과 성생활만족이 낮고 일만족이 높은 집단은 성생활만족이 높고 일만족이 낮은 집단과 성생활만족이 낮고 일만족이 낮은 집단보다 심리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써, 중년기 기혼여성이 발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부관계를 재평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성과 자신의 일이 지니는 의미를 재탐색해보았다.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첫

째, 성지식, 성태도, 성대처행동 및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를 통해 중년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의 부부간의 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일몰입, 일만족 및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를 통해 중년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의 일의 의미를 살펴보고, 셋째, 중년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성생활만족과 일만족에 따른 4개 집단(성고일고, 성저일저, 성고일저, 성저일저의 4집단)이 심리적 행복감에서 보이는 차이를 통해 중년기 기혼여성에게 있어 성과일의 조화로운 균형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부간의 성이 중년기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의 성생활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지식과 성생활만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업주부는 취업주부가 성태도에서 높은 전통적 성태도를 보인 반면 취업주부는 전업주부보다 높은 자유적 성태도를 보였다. 또한 성대처행동에서도 전업주부는 높은 성적 통제성을 보인 반면, 취업주부는 높은 성적 표현성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전업주부가 전통적인 성태도를 지니고 부부간의 성에 대해

억압적인 성대처행동을 보일수록 성생활만족이 높을 것이며, 취업주부는 자유로운 성태도를 지니고 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할수록 성생활만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연구결과는 취업주부의 근대적 성태도가 심리적 행복감과 정적 상관이 있고, 전업주부의 전통적 성태도가 심리적 행복감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조금숙과 조중열(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아울러 중년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성관련변인과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년기 전업주부는 첫째,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대처행동과 성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많은 성지식과 정확한 성 정보를 갖고 있을수록 자신의 성욕구를 잘 통제하고 성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때문에(Mecloski, 1976), 부부간의 성생활만족이 높았다. 둘째,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태도는 성대처행동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성생활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년기 전업주부의 전통적 성태도는 성을 억제하는 성대처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부간에 성적 표현을 금기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리적 성태도를 지닌 중년기 전업주부일수록 성에 대한 관심과 불만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부부간의 성적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성태도에 따라 성생활만족 여부가 달라진다는 Rubin(1965)의 견해와 여성의 성만족은 배우자의 지지나 성교빈도가 아닌 개방적인 성태도에 가장 영향을 받는다는 양미란(1993)의 연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둘째, 중년기 전업주부의 성적 표현성 대처행동이 성생활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

다. 따라서 중년기 전업주부의 개방적 성태도가 성생활만족을 저해하는 것은 중년기는 젊은 청소년이나 성인기에 비해 성에 대해 덜 개방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 성태도를 고수하는 기혼여성일수록 성생활에 만족해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전업주부가 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전업주부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윤경자(1997)의 연구를 지지한다. 셋째, 성지식은 중년기 전업주부의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전통적 성태도를 지닌 중년기 전업주부는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합리적인 성태도를 지닌 중년기 전업주부는 진정으로 심리적 행복감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성적 통제성의 성대처행동은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성생활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을 느꼈다. 이런 결과는 전통적 성태도나 통제적 성대처행동은 중년기 전업주부가 부부간의 성을 억제하면서 성생활의 만족이 높다고 지각하지만, 만족스런 성생활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아성취 및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신체문제를 완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Cole, 1975), 중년기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과 자아실현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활동에 중요한 관련이 있다. 즉, 성생활만족은 당사자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더 나아가 가정생활의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생활만족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년기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성지식이 성대처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심리적 행복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풍부한 성지식은 적절한 성적 대처행동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심리적 행복감을 부여해주지 않음을 암시한다. 취업주부도 전통적인 성태도는 성적 통제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성적 표현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합리적인 성태도는 성적 표현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성태도를 지니고 성을 적절히 통제하는 중년기 취업주부일수록 성생활만족이 높았다. 이는 성에 대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취업주부가 오히려 성생활만족이 낮은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중년기 기혼여성에게 성은 개방적이지 않은 부부간의 은밀한 것으로써 성적 불만을 잘 통제할 때만 현명하게 성생활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반면에 성에 대해 진정으로 행복한 취업주부는 합리적인 성태도를 지니고 부부간의 성에 대해 배우자와 적절히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근대적 성태도가 심리적 행복감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조금숙과 조증열(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중년기 기혼여성의 일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일몰입과 일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업주부가 가사일에 몰입하고 만족하는 정도는 취업주부가 직장일에 몰입하고 만족하는 정도보다 낮았다. 이는 최근 여성의 높은 사회진출과 관련된 결과로써, 취업유무와 상관없이 중년기 기혼여성이 상호작용하는 제반요인들이 심리적·신체적 안녕감에 기여한다는 결과(김

혜원, 1997; Baruch, Biener, & Barnett, 1987; Barnett, Davison, & Marshall, 1991)와 달리, 중년기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에서 자기성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결과이다. 둘째, 중년기 전업주부가 가사일에 몰입할수록 일만족이 높았고, 일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을 증진시켰다. 취업주부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전업주부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취업주부는 직장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여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낄수록 자신의 일에 만족해했다. 또한 중년기 전업주부나 취업주부의 일만족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지각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과 중요한 관련요인이라는 Trait 등(1989)의 입장을 지지한다.

셋째,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성생활만족과 일만족의 평균점수에 따라 4집단으로 구분한 후 심리적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변량분석결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성생활만족이 높고 일만족이 모두 높을 때 심리적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성생활만족이 낮고 일만족이 모두 낮을 때 심리적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다시 말해서,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모두 부부간의 성과 자신의 일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하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Scheffé 사후검증결과, 전업주부는 부부간의 성이나 가사일 중 어느 한 부분의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해한 반면, 취업주부는 부부관계보다는 직장에서의 인정이나 업무성취를 더 중시했다. 본 연구결과는 기혼여성의 심리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 부부관

계의 질(Aneshensel, 1986)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개인의 행복과 자아개발을 중시하는 중년기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일, 특히 직장이 심리적 행복의 중요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여성은 남성과 달리 일과 가정이라는 두개의 꿈 사이에서 늘 갈등해왔기 때문에(김애순, 1998; Levinson, 1996), 삶의 전환기인 중년기에 기혼여성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여성이 개인의 행복과 부부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자기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성과 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시사한다.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된 많은 기존연구들은 성의 한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맞벌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아젠더를 다룸으로써, 성과 일을 분리하여 취급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에서 성생활과 일생활 중 어느 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부부간의 성과 자신의 일의 균형은 부부관계를 조화롭고 친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성취 개발과 나아가 가족의 건강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는 전환기에 있는 기혼여성에게 부부간의 성과 자신의 일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중년기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표본표집이 중년기 기혼여성의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둘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45.99세로 40-64세 중

년기 연령을 포괄하기에는 연령이 낮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대상에 중년기 기혼여성만을 포함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하여 중년기 기혼남성의 성과 일의 양립도 함께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기혼여성에게 부부간의 성과 일, 특히 직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가족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비성교부부(sexless marriage)의 증가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이준택 (2003). 직장여성과 전업주부의 행복과 행복한 삶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논문자료집. 한국심리학회.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의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415-442.
- 김경민 (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생활사건 경험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 (1988).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 (2004). 중년기 발달. 교문사.
- 김경희 (2002). 직업군인이 지각하는 성역할정체감과 조직몰입, 직무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김애순 (199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 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 (1997). 사회구조적 변인과 사회적 지원에 따른 취업주부·비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 115-136.
- 김연, 유영주 (2002). 기혼 남녀의 성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1-18.
- 나임순 (2006). 노인의 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3) 547- 563.
- 남순현 (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혜숙 (1993). 부부적응과 성적정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연구: 도시 중산층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 이영미, 김경화 (2006).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가치관 및 성관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3) 3, 171-179.
- 박민자 (1997). 부부관계의 평등성.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박정희, 유영주 (1999). 주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계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91-119.
- 신기영 (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명숙, 하경란 (1997). 모(시·친정)와의 동거여부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01-313.
- 윤경자 (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윤창영, 이순목 (2002). 주관적 삶의 질의 구조모형: 기혼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43-72.
- 이홍식 (1986). 성치료, 남성과학, 4(3) 31-37.
- 이홍식 (1987). 기혼여성의 성행위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6(4) 689-695.
- 임효영 (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 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동철 (1985). 한국에서의 성치료와 그 문제점. 정신건강연구, 3 71-88.
- 정은의, 노안영 (2007).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59-82.
- 정진희, 이정우 (2005). 판매직 주부의 공평성인지도, 역할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2) 81-103.
- 조금숙, 조중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 조옥희 (2004).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역할갈등,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7). 인구동태연보. [http:// www.nso.go.kr](http://www.nso.go.kr)
- 하은혜, 오경자 (1999).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관계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79-93.
- 한경혜, 노영주 (2000). 중년여성의 40대 전환기 변화 경험과 대응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12(1) 67-91.

- 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가족복지론. 청목 출판사.
- 홍미혜 (1999).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의미 수준이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Y: The Free Press.
- Allgeier, A. R. & Allgeier, E. R. (1988). *Sexual Interaction*. Boston: Lexington, M. A.
- Andrew, F. & Robinson, J. (1991).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1.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 Aneshensel, C. S. (1986). Marital and employment role strai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adult women. In S. Hobfall (ed.), *Stress, social support, and women*. Washington, DC: Hemisphere.
- Baruch, G. K., Biener, L., & Barnett, R. C. (1987). Women and gender in research on work and family stress. *American Psychologists*, 42(2) 130-136.
- Barnett, R. C., Davison, H., & Marshall, N. L. (1991). Physical symptoms and the interplay of work and family roles. *Health Psychology*, 10(2) 94-101.
- Blau, G. J. (1985). The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8, 277-288.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lark, A. E. (1996). *Job satisfaction and gender. why are women so happy at work?* DEELSA, France.
- Cole, T. (1975). Sexuality and physical disabilit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4).
- Costa, P. T. & McCrae (1980). Personality Continuity and the Changes of Adult Life. In M. Storandt, & G. R. Vanden Boss (eds.), *The Adult Years: Continuity and Chang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5-77.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oss.
- Dehle, C. & Weiss, R. L. (1998). Sex differences in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marital quality and depressed m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4) 1002-1011.
- Derogatis, L. R. (1980). Psychological assessment of psychosexual functioning.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1) 58-7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uvall, M. E.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 Farrell, M. P., & Rosenberg, S. D. (1981). *Men at Midlife*. Boston: Auburn.
- Gould, R. L. (1978). The Phase of Adult Life: A Study in Development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9, 521-531.
- Heady, B. & Wearing, A. (1992).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oward a

-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95-910.
- Hogan, R. M. (1985). *Human Sexuality: A Nursing Perspectives*(2nd ed.).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 Hudson, W. W., Harrison, F. D., & Crosscup, C. P. (1981). A short form to measure sexual discord in dyadic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7(2) 157-174.
- Hudson, W. W. & Murphy, G. J. (1990). *Sexual Attitude Scale*. Walmyr Publishing Co.
- Jaques, E. (1965). Death and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502-514.
- Judge, T. A. & Watanabe, A. (1993). Another look at the job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939-948.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Y: Ballantian Books.
- 김애순 (1996).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세종연구원.
- McCann, J. T. & Biaggi, M. K. (1989). Sexual satisfaction in marriage as a function of life meaning.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8, 1, 59-72.
- Mecloski, J. C. (1976). How to make the most of body image therapy. *Nursing*, 76, 68-72.
- Moss, B., & Schwebel, A. (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 31-37.
- Near, J. P., Smith, C. A., Rice, R. W., & Hunt, R. G. (1983). Job satisfaction and nonwork satisfaction as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126-144.
- Rescher, N. (1972). *Welfare: The social issues in Philosophical perspective*. Pittsburgh Press.
- Rossi, A. S. (1980). *Aging and Parenthood in the Middle Years*, in P. B. Balts & O. G. Brim (eds.) CA: Sage, 105-176.
- Rubin, I. (1965). *Sexual Interactions*. D. C. Health and Company.
- Szalai, A. (1980).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In A. Szalai & F. M. Andrews (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 7-21,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1 차원고접수 : 2008. 12. 17.
수정원고접수 : 2009. 02. 23.
최종게재결정 : 2009. 02. 27.

The effects of middle-aged married women's sexuality and work 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happiness

Nam, Soonhyeon

Dep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middle-aged married women's sexuality and work according to the change of middle-age development in terms of their psychological happiness in contemporary unstable families. The research was based on a survey of 374 middle-aged married women (166 housewives, and 206 career women) conducted from January 15th to February 22nd, 2008. Firstly, the results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impact of middle-aged housewife's sexuality on levels of psychological happiness, traditional sexual attitudes, rational sexual attitudes, controlling types of sexual coping behavior, and sexual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upon levels of psychological happiness. As middle-aged career women, sexual knowledge, traditional and rational sexual attitudes, and the expressive type of sexual coping behavior had significant effects on levels of psychological happiness. Second,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s of middle-aged married women's work up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happiness, both housewives and career women's work commitmen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work satisfaction and work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happiness. Finally,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middle-aged married women's sexuality and work up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happiness. As a result, the group which had higher levels of sexual satisfaction and higher levels of work satisfaction than lower sexual satisfaction and lower work satisfaction levels presented higher levels of psychological happiness. Moreover, middle-aged married women who showed lower sexual satisfaction and higher work satisfaction levels than higher sexual satisfaction and lower work satisfaction levels presented higher levels of psychological happiness. Thus this study suggested that in contemporary society, one's job will become an important factor for middle-aged married women.

Key words : middle-aged, married women, sexuality, work, psychological happiness, sexual satisfaction, sexual attitudes, sexual coping behavior, work commitment, work satisfaction